

황윤호 “수비 전문? NO! 내년엔 홈런 칠겁니다”



김여울 기자

TIGERS
오키나와 캠프를 가다

올 시즌 타석에서 오버 스윙
와일드 카드 결정전서 수비 실수
“이미지 쇠신으로 기회 잡겠다”
자세 바뀌며며 쉽 없는 연습

생존을 위해 ‘공격’을 선택한 수비형 내야수 황윤호다.

황윤호는 KIA 타이거즈가 ‘수비 강화’를 위해 지난겨울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한 선수다.

수비에 특화된 선수지만 황윤호는 이번 오키나와 마무리캠프에서 타격을 먼저 생각했다.

황윤호는 “올 시즌 타격 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다.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타석에 많이 못 들어가면서 무조건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에 오버 스윙을 했다”며 “캠프에서 폼과 타이밍에 신경 많이 썼다. 정확한 스윙, 좋은 스윙을 하려고 한다. 내년에는 홈런도 치고 타율을 높이고 싶다”고 말했다.

황윤호가 오키나와에서 심 없이 방망이를 휘둘렀던 것은 ‘이미지 쇠신’을 통한 ‘기회 잡기’를 위해서였다.

황윤호는 “냉정하게 주전들은 정해져 있다. (주전)형들이 1년 풀타임을 나갈 수는 없으니 상황이 오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올 시즌 방망이가 안 됐다. 타격이 안 된다는 이미지를 버리는 게 중요하다”며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공격보다 수비라는 것을 안다. 나에게 수비가 80% 정도다. 나도 수비 자부심이 있지만 이번 캠프에서는 반대로 공격에 80%를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을 돌아봤을 때 황윤호에게 기억에 남는 두 장면이 있다.

황윤호는 지난 6월 3일 두산 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연장 10회말 2사 만루에서 박치국의 추구를 때려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는 끝내기 안타를 터트렸다. 생애 첫 끝내기 안타의 짜릿함을 느꼈던 황윤호는 올 시즌 마지막날에는 잊고 싶은 시간을 보냈다.

지난 10월 16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넥센 히



KIA 타이거즈의 내야수 황윤호(왼쪽에서 세 번째)가 일본 오키나와 키키투에 진행된 마무리캠프에서 수비 훈련을 하고 있다.

/오키나와=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어로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김선빈의 부상으로 유격수로 투입된 황윤호는 5회 실책을 기록하는 등 수비에서 잇단 실수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안방마님” 김민식의 실수까지 겹치면서 2-0으로 앞서 있던 KIA는 바로 2-5 역전을 허용했고,

분위기 싸움에서 밀리며 승리를 내줬다.

생애 첫 포스트시즌이었던 야구 인생 최고의 날은 ‘악몽의 날’로 끝나고 말았다.

황윤호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수비였는데 그걸 못했다. 혹시 모를 부상 상황에서의 대수비나 대주자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준

비는 했다. 긴장은 안 됐는데 실수를 했다”며 “타구가 빠르고 주자도 빨랐다. 공을 먼저 봐야 했는데 주자를 먼저 봤다. 그러면서 실수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또 “가을 야구 한 경기에서 결정이 나는데 분위기를 넘어오게 했다. 시즌 내내 고생한 팀원들과

감독님, 코치님들에게 너무 죄송했다.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다”며 “지금은 잊었다.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다. 더 잘하겠다는 생각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실수를 만회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wool@kwangju.co.kr

‘남시꾼 스윙’ 최호성 美 언론 주목

일본 프로골프 투어 카시오오픈 우승...골프위크지 스윙 영상 소개

‘남시꾼 스윙’으로 유명한 최호성(45·사진)이 일본프로골프 투어(JGTO) 대회 정상에 오른 사실에 미국 골프 전문 매체들도 관심을 보였다.

최호성은 25일 일본 고치현에서 끝난 JGTO 카시오 월드오픈에서 우승, 상금 4천만엔(약 4억원)을 받았다.

공을 치고 난 뒤 클럽을 잡고 있는 모양이나 다리 자세가 마치 남시꾼이 남시 채를 잡아채는 동작과 닮았다고 해서 ‘남시꾼 스윙’이라는 별칭이 붙은 최호성은 올해 이미 한 차례 세계 골프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았던 선수다.

올해 6월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위크가 최호성의 스윙 영상과 이력, 팬들의 반응 등을 소개했고, 저스틴 토머스(미국)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최호성의 스윙을 올리는 등 그의 독특한 스윙 자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최호성의 JGTO 우승도 미국 매체들이 주요 기사로 다뤘다.

미국 골프 전문 매체 골프닷컴은 “인터넷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최호성이 우승자 대열에 합류

했다”며 “그는 올해 한국오픈에서 우승했다라면 브리티시오픈에도 출전할 수 있었으나 아쉽게 우승 경쟁에서 밀려났다”고 소개했다.

다른 매체 골프채널 역시 “최호성의 유니크한 스윙이 일본에서 우승으로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여는 JGTO 대회 결과는 미국 매체에서 좀처럼 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프 채널은 “45세 나이에 최호성은 5년 만에 우승으로 세계 랭킹 200위권에 근접하게 됐다”고 전했다.

최호성은 지난주 세계 랭킹 351위에서 142계단이 오른 209위가 됐다. 그의 2017년 말 세계랭킹은 524위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 IBSF 대륙간컵 3차 우승

‘스켈레톤 기대주’ 정승기(가톨릭관동대)가 2018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대륙간컵 3차 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은 26일 “정승기가 지난 23-24일까지 독일 빈터베르크에서 열린 IBSF 스킨레톤 대륙간컵 3-4차 대회에 나서 3차 대회에서 우승하고 4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정승기는 3차 대회 1,2차 시기 합계 1분53초03으로 우승했고, 4차 대회에서는 1, 2차 시기 합계 1분53초68로 3위를 차지했다.

함께 나선 김지수(강원도청)는 3차 대회 7위(1분54초25), 4차 대회 5위(1분53초91)로 메달권에서 벗어났다.

대륙간컵은 월드컵 보다 한 단계 낮은 대회다. 하지만 정승기는 지난 16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대륙간컵 2차 대회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3차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챙기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승기는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겨울스포츠의 미래’로 선정돼 오륜기를 들고 입장한 8명 가운데 한 명이다.

2016년 2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홈페이지를 통해 동계유스올림픽에 출전 중인 정승기를 소개하면서 윤성빈(강원도청)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인정받았고, 지난 7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는 전체 1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연합뉴스

신지애, JLPGA 사상 첫 한 해 메이저 3관왕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사상 최초로 한 해에 메이저 3승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룬 신지애(30)가 자신의 목표인 상금왕을 이루기 위해 비시즌을 더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신지애는 지난 25일 끝난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자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JLPGA 투어 2018시즌 최종전 리코컵 투어 챔피언십(총상금 1억원)에서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올해 일본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5월 살롱파스컵, 9월 LPGA 챔피언십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제패한 신지애는 9월 일본여자오픈을 제외하고 메이저 3승을 따내는 기력을 발휘했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로 치면 올해의 선수에 해당하는 메르세데스 랭킹 포인트 부문 1위를 확정지은 신지애는 상금과 평균 타수 부문 2위에 오르며 일본 무대의 최강자로 군림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상금 1위에 오른 신지애는 2009년에는 LPGA 투어 상금 1위까지 차지, 일본에서도 상금 1위를 기록하며 사상 최초의 한-

마일 상금왕을 석권한다.

상금 부문에서는 안선주(31)에 이어 신지애가 2위, 대상 포인트 부문에서는 신지애-안선주 순으로 시즌을 마친 가운데 신지애는 “안선주 프로가 워낙 좋은 플레이를 펼쳤다”며 “서로 진심으로 축하해줄 수 있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LPGA 투어에서도 메이저 2승을 포함해 11승을 거둔 신지애는 “2019년에는 미국 대회 출전도 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